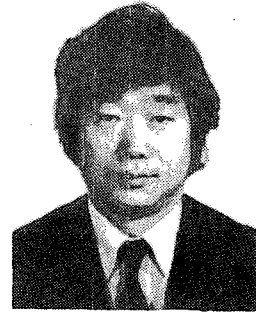


# 環境汚染과 生活環境



鄭 勇

〈本協會 專門委員〉  
〈연세大 醫大教授〉

環境汚染에 대한 人間の 適應은 無限할 것인가?

各種 環境汚染物質은 보다 多樣하여 지고 産業의 發達과 經濟成長은 또한 이들의 排出量이 增加하고 있다.

人間은 空氣·물·農産物·家畜 그리고 生活環境을 通하여 微量씩 攝取하고 있어 量的으로는 相當히 많은 量을 蓄積하고 있다. 몸속에 長期間 쌓인 各種 汚染物質들은 現在는 疾病으로 發現치 않고 있으나 어떠한 몸의 異常, 即 營養缺乏, 피로, 다른 疾患等으로 이들의 毒性은 발휘될 것이다. 數많은 汚染物質들의 人體의 蓄積은 潜在的 疾病狀態, 즉 負擔스러운 汚染物質: pollutant burden으로 作用한 것이다. 現代에 있어 先進國의 死亡原因中 가장 罹患率이 높은 疾病은 高血壓, 癌 및 神經性疾患 等이다. 이들은 대체로 環境性疾患들로서, 慢性的으로 發病하고 固疾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環境性疾患은 그 直接의 原因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不確實性 때문에 現在도 有毒物質을 내뿜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地境인 것이다.

그러므로 環境汚染物質의 有毒性評價는 매우 엄격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美國에서는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중의 有毒性物質에 대하여 環境影響評價를 實施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有毒性物質이 얼마나 環境을 汚染시킬 수 있고, 또한 어떠한 健康被害가 올 수 있을가를 미리 推定하고 이에 對處하려고 하는 것이다.

現在까지 주로 環境汚染評價에 있어 環境指標들(BOD, COD, 亞黃酸가스, 粉塵等)에 의한 評價도 중요하나 生態系蓄積性, 健康障害를 誘發할 가능성이 있는 有害物質들에 대한 毒性評價도 重要하다. 따라서 이들 有害物質의 監視와 特別히 處理方法의 考案에도 努力을 보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디에서든지 마음놓고 숨을 쉴 수 있고 물을 마실수 있는 깨끗한 生活環境을 다시 만들어서 子孫萬代에 이 江山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